



2016년 퇴직연금시장 주요 실적

이상우 수석연구원

2016년 퇴직연금시장은 제도 도입 11년 만에 적립금이 147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가입자 관리비용 부담이 개선되었음. 다만, 퇴직연금시장에서 과도한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운용, 낮은 운용수익률, 가입자의 지나친 일시금 수령 선호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최우선으로 개선하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함

■ 금융감독원(2017.5)¹⁾ 발표에 따르면, 2016년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전년도(126.4조 원) 대비 16.3% 증가한 147조 원으로 나타남

- 종류별 적립금 규모는 DB(확정급여)형 99.6조 원, DC(확정기여)형 34.2조 원, IRP 13.2조 원이며, 각각의 적립금 비중은 67.8%, 23.3%, 9.2%임
 - 전년대비 증가율은 DC형(20.3%), DB형(15.4%), 개인형IRP(14.1%), 기업형IRP(6.5%)의 순으로 높음
- 적립금 증가액을 감안할 경우 2017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은 150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 전체 적립금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에 각각 89.0%와 6.8% 운용되고 있어 여전히 적립금 편중운용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기업주가 운용책임을 지는 DB형이 가입 근로자가 운용책임을 지는 DC형보다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비율이 현저하게 높음(〈표 1〉 참조)
- 원리금보장상품은 예·적금(47.7% 비중), 금리확정·연동형보험상품(42.9%), 원리금보장형ELB(7.9%)²⁾ 순으로 운용되고 있음
- 실적배당형상품은 채권형·채권혼합형(84.7%)에 대부분 투자되며, 주식형은 8.1% 불과한 수준³⁾

1)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7. 5. 4)

2) 원리금보장형 ELS상품

〈표 1〉 2016년 유형별 적립금 현황

(단위: 조 원, %)

구 분	DB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원리금보장형	94.6	95.0	27.0	78.9	0.7	85.8	8.6	69.2	130.9	89.0
실적배당형	2.0	2.0	5.7	16.7	0.07	8.7	2.2	17.8	10.0	6.8
기타	3.0	3.0	1.5	4.3	0.04	5.5	1.6	13.0	6.1	4.2

자료: 금융감독원(2017. 5)

■ 퇴직연금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은 〈표 2〉와 같이 은행이 약 50%를 차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순으로 높음

- 1년간 적립금 증가율은 근로복지공단(42.8%), 금융투자(20.7%), 손해보험(18.2%), 은행(15.6%), 생명보험(13.5%)의 순임
- 권역별 원리금보장형 비중은 손해보험(98.7%), 근로복지공단(97.2%), 생명보험(95.4%), 은행(88.8%), 금융투자(77.0%)의 순임

〈표 2〉 2016년 권역별 퇴직연금 시장규모

(단위: 조 원, %)

구 분	은 행	생명보험	금융투자	손해보험	근로복지공단	합계
적립금(점유율)	73.3(49.8)	36.0(24.5)	26.6(18.1)	9.9(6.8)	1.2(0.8)	147.0(100.0)
전년대비 증감률	15.6	13.5	20.7	18.2	42.8	16.3
원리금보장형 비중	88.8	95.4	77.0	98.7	97.2	89.0

■ 전체 적립금 연간 운용수익률은 전년 대비 0.57%p 감소한 1.58%이며, 총비용부담률⁴⁾은 전년 대비 0.04%p 감소한 0.45% 수준임

- 상품권별 운용수익률은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이 각각 1.72%, -0.13%임
 - － 제도 유형별 운용수익률은 DB형(1.68%), DC/기업형IRP(1.45%), 개인형IRP(1.09%) 순임
- 제도 유형별 총비용부담률은 DC/기업형IRP(0.62%), 개인형IRP(0.46%), DB형(0.38%) 순임
 - － 금융권역별 총비용부담률은 근로복지공단(0.16%)을 제외하면 은행(0.47%), 생명보험(0.44%), 금융투자(0.43%), 손해보험(0.38%)이 유사한 수준임

3) 다만, DB형의 경우 최근 실물자산펀드(21.4% 비중)에도 활발히 투자되고 있음

4) 총 적립금 대비 퇴직연금회사에 지불하는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등의 비용부담률

– 은행(0.47%), 생명보험(0.44%), 금융투자(0.43%), 손해보험(0.38%) 순임

■ 퇴직연금 수급자는 98.4%가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1.6%만이 연금을 수령하여 일시금 편중 현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퇴직연금 적립금이 적은 소액 연금계좌를 보유중인 수급자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

● 다만,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일시금과 연금 수령 비중이 각각 79.7%, 20.3%임

■ 퇴직연금제도 도입 후 11년이 경과하여 적립금 규모가 15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원리금보장형 중심의 편중운용, 낮은 운용수익률, 일시금 편중 수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kiri](#)